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 (제4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 -그린 리커버리로 재검토되는 농업의 기본방향-1)

(원문) ALIC 調査情報部 国際調査그룹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 1. 머릿말

2020년 봄 이후 유럽연합(EU)의 각 회원국에서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확대되었고, 록다운(lock down, 도시 봉쇄)이나 국경 관리 외에 사회 및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실시되었다(사진 1). COVID-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은 EU 회원국 국민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영향을 미쳤으며, EU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축산업계에서는 COVID-19의 확대 이후 록다운에 수반된 사재기나 외식산업 영업 정지에 의한 수요 변화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이동 제한에 의한 국경에서의 식품 유통 혼란이나 계절 노동자 부족, 식육 처리장에서의 집단 감염에 의한 조업정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다양한 혼란이 일어났다(사진 2).

---

1) 이 글은 農畜産業振興機構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ーと見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의 내용을 번역하여 해설을 덧붙여 제공하는 것이다.

\*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p>&lt;사진 1&gt; 록다운 직후 브뤼셀(벨기에) 변화가 모습. 거리에 사람과 차 모두 사라졌다.(JETRO 브뤼셀 촬영, 2020년 3월 25일)</p>	<p>&lt;사진 2&gt; 록다운 첫날 브뤼셀의 슈퍼마켓 식육가공품 매장의 모습. 정오부터 록다운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물건을 사러 온 고객이 쇠도 하였다(JETRO 브뤼셀 촬영, 2020년 3월 18일)</p>
	

그러나, 그 후의 유럽위원회나 각 회원국에 의한 대응이나 지원책과 같은 조치 이외에도, 록다운 등과 같은 규제도 서서히 완화되고 있었으며, 외식 수요도 재개하는 등 여름 무렵에는 생산,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일정한 회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OVID-19의 영향 하에 있어 지역생산, 지역소비 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일부 회원국에서 감염 제2차 확산 등이 확인되어 두 번째, 세 번째 록다운이 실시되는 등, EU 역내 국민에게도 축산업계에 있어서도 다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U 축산업계의 COVID-19 영향 등에 대해 현지정보를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유로=128엔=1,326원(2020년 12월 말일 TTS 시세: 128.45엔, 1,326.18원)을 사용하였다.

## 2. COVID-19를 둘러싼 축산업계 동향 및 지원책 등

EU에서는 역내에서 COVID-19가 보고되지 않은 2020년 1월 17일 시점에 유럽위원회가 보건안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조기에 초동대응을 취하였다. 1월 24일 프랑스에서 역내 첫 감염자가 보고되었고, EU에서는 1월 28일 위기대응 체제를 테러 발생 시와 같은 최고 수준으로 바꾸었으며, 역외에 체류하는 EU 회원국 국민의 본국 귀환 등과 같은 준비체제를 정비하였다. 1월 30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위생상 긴급사태를 선포하였다.

EU 각지에서 COVID-19 관련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유럽식품안전기구(EFSA<sup>2)</sup>)는 3월 9일 식품이 감염원 또는 감염 경로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고 공표하여, 소비자의 음식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였다.

그 후에도 감염자는 계속 증가하였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1월 10일부터 전국을 록다운 시키기로 결정하여, 다른 회원국의 긴장도 단번에 높아지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 1월 30일에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특히 2월 후반이 되어도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대되는 등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강력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이후 감염 확산은 스페인,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다른 회원국에서도 계속되었다.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WHO는 3월 13일 그 팬데믹의 중심이 유럽이라고 밝혔다.

각 회원국의 록다운은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독일에서 3월 16일(주마다 다름), 프랑스에서 3월 17일, 유럽위원회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3월 18일부터 실시되었다. 국경 관리와 점포 영업정지, 외출 및 이동제한 등의 규제가 잇달아 실시되는 등 혼란은 계속되었다.

유럽위원회의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3월 16일 감염 확대 억제를 위해 원칙으로서 EU 역외로부터 역내에의 불요불급한 도항을 30일간 금지하는 이례적인 방침을 정하였다. 그 후 록다운이 해제된 것은 독일이 4월 20일(주마다 다름), 이탈리아 및 벨기에가 5월 4일, 프랑스가 5월 11일이었으며, EU 역외에서 역내로의 도항 제한이 해제된 것은 7월 1일이었다.

### <농·식품 부문 지원책 등>

이러한 가운데, 농업·식품 부문에 대해, EU 레벨의 지원책이 차례차례로 실시되었다(표).

<표 1> COVID-19 대책으로 실시된 주요 EU 농업·식품부문에 대한 지원책

주요 내용	시행일
[서플라이 체인 대책]	
· 가축을 포함한 식품 등 생활필수품 등의 그린레인(우선 레인) 도입(국경검사를 15분 이내로 실시)	2020년 3월 16일
· 계절노동자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2020년 3월 30일

2) 유럽식품안전기구(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는 식품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 정책 및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인을 사정하고 관리하며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노력 전개하면서 책임 분담을 실시하고 있다. EFSA는 위해요인 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우선적 책임 부담을 지고 있으며, 집행위는 위해요인 관리(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 선택 제안에 대한 책임 부담을 지고 있다. 유럽식품안전기구 활동 및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 경보시스템인 RASFF(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연합(EU)의 식품안전정책 (유럽연합 개황, 2018. 9.), <https://terms.naver.com/>)

[직접지원]	
· EU국가보조규칙의 유연한 적용을 인정하는 잠정적 국가보조규칙 쿼터 군에 의해 각 회원국에 의한 생산자들에게 대한 보조액을 증액(생산자: 최대 12만 5,000유로, 식품 가공·판매사업자: 최대 80만 유로)	2020년 3월 19일
· 생산자 등에 대한 저리 등 유리한 조건에 의한 영업비 용자, 보증(최대 20만 유로)	2020년 4월 2일
· CAP(공통농업정책) 보조금의 사전지불액(前支拂額) 증액(직접지불: 현행 50%에서 70%로, 농촌진흥지불: 75%에서 85%로)	2020년 4월 16일
· 새로운 농촌진흥책으로써 생산자, 중소기업자에게 보상(생산자: 최대 7,000유로, 수산품을 제외한 농축산물 가공·판매·개발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 최대 5만 유로)	2020년 4월 30일
[시장조치]	
· 민간재고보조(조정보관) 발동(대상: 탈지분유, 버터, 치즈, 쇠고기, 양고기, 산양고기. 보관기간: 2-6개월)	2020년 5월 4일
· 업계에 의한 자주적인 계획생산 등이 최대 6개월간 가능하게 되는 EU 경쟁법의 일부 적용 제외(대상: 원유, 화훼, 가공시금치)	2020년 5월 4일
· 사업변경이나 중지 등 유연한 시장지운사업 등 적용(대상: 와인, 청과물, 식용 올리브, 올리브유, 양봉, 학교급식제도(우유·유제품, 과일, 채소))	2020년 5월 4일
[CAP(공통농업정책)의 유연한 대응]	
· 보조금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5월 15일에서 6월 15일로)	2020년 3월 17일
· 현지확인 경감(대상을 CAP 예산의 5%에서 3%로. 위성사진 활용이나 위치정보가 들어있는 사진 등에 의한 신기술 활용도 장려)	2020년 4월 16일

주: 연월일은 유럽위원회에 의한 채택일 또는 공표일

자료: 유럽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우선, EU에 대응이 요구된 것은 국경 관리로 혼란한 식품 유통을 개선하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대책’ 이었다. 유럽위원회는 3월 16일 식품 등의 생활필수품이나 가축 등에 그린레인(우선 레인)을 도입하였다. 또, 생산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CAP(공통농업정책)의 유연한 대응’ 으로서 보조금 신청 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다.

또 계절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 외에 ‘직접지원’ 으로서 저리 용자나 선불 보조금의 증액 등을 조치하였다. 그 밖에 5월 들어서는 시장조치로서 영향이 컸던 품목에 대해 민간재고보조(조정보관) 발동 등을 조치하였다.

‘시장조치’ 는 이례적으로 EU회원 27개국의 농업대신 연명에 의한 유럽위원회 공동성명에 대응한 것이다. 보이체호프스키 유럽위원회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은 “EU 생산자와 식품 공급망의 모든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역내 국민들에게 식량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향후에도 생산자나 식품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각 회원국과 제휴하여 역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COVID-19 대책으로서 실시된 주요 EU 농업·식품 부문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위의 <표 1> 및 다음의 정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COVID-19 대책으로 실시된 주요 EU 농업·식품 부문에 대한 지원책 등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유럽위원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대해, 식품유통을 포함한 국경관리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 유럽 식품·안전기관, 식품을 매개로 한 감염의 증거는 없다고 보고(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対し, 食品流通を含む国境管理措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公表. 欧州食品安全機関, 食品を介した感染の証拠はないと報告」)([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46.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46.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유럽위원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에 대응하는 농업·식품부문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対応する農業・食品部門を引き続き支援」)([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유럽위원회, 추가 지원조치를 채택,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하에 있는 생산자의 캐쉬플로우 개선 등(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追加支援措置を採択.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下にある生産者のキャッシュフローの改善など」)([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1.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유럽위원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대책을 채택, 유제품, 쇠고기 등의 민간재고 보조(PSA)를 5어늘 7일부터, 치즈는 최대 10만 톤 시장격리(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追加対策を採択. 乳製品, 牛肉などの民間在庫補助(PSA)を5月7日から. チーズは最大10万トン市場隔離へ」)([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EU이사회, 생산자 및 중소기업자용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지원조치를 채택(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EU理事会, 生産者および中小事業者向け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追加支援措置を採択」)([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4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41.html))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위원회는 ‘시장 조치’ 품목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면 어느 분야에서 영향이 컸는지를 엿볼 수 있다. 대상 품목은 탈지분유, 버터, 치즈, 쇠고기, 양고기, 산양고기, 원유, 화훼, 가공용 감자, 와인, 청과물, 식용올리브, 올리브유, 양봉, 학교급식 중 우유·유제품, 과일, 채소 등이다(순서는 발표된 지원책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각 지원책의 대상을 충실히 알리기 위해 작성되어 품목 중복 등이 있음). 주로 외식 및 수출 비중이 큰 품목 위주임을 알 수 있다.

유럽 식품·농업·관광 관계 노동조합연합회(EFFAT)와 유럽 호텔·외식산업협회(HOTREC)가 2020년 11월 27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EU 역내 호텔 및 외식산업의 2020년 2분기(4-6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3% 감소하였다. 감염자 수가 많았던 스페인의 외식산업은 동 75% 이상 감소하는 등, 각지에서 호텔을 포함한 외식산업이 받은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021년 이후 부흥을 위한 대책>

위기 속에서, EU 레벨로의 지원책이 차레차레로 실시된 반면, EU는 2021년 이후의 부흥을 위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었다. 유럽 이사회(EU 정상회의)는 2020년 12월 10일 부흥기금 ‘Next Generation EU(차세대의 EU)’ (7,500억 유로, 96조 엔, 994조 5,000억 원)와 차기(2021~27년) 복수년도 재정 범위(1조 743억 유로, 137조 5,104억 엔, 1,425조 5,218억 원)에 합의하여, 환경 정책이나 디지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총액 1조 8,243억 유로(233조 5,104억 엔, 2,419조 218억 원)의 부흥 예산을 발표하였다(사진 3).



‘환경’ 과 ‘디지털화’ 라는 잠재성이 있는 분야로의 예산 확대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그린 리커버리’ 라 불리는 부흥과 동시에 차세대를 향해 강인하고도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실질 제로)을 목표로 하는 유럽위원회의 최대 중요 정책인 ‘유럽 그린딜’ 의 일환으로, 차기 복수년도 재정 구조와 부흥 기금 총액 중 30% 이상을 기후 변동 대책에, 부흥기금 중 37% 이상을 환경정책에, 20% 이상을 디지털 정책에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 그린딜’ 및 농식품 부문에 대한 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 ‘유럽 그린딜’ 등에 관한 자료

- 농축산업진흥기구, alic세미나(2020년 12월 14일 개최), ‘EU의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 대하여-2030년을 향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EU 농업·식품부문-’ (農畜産業振興機構, alicセミナー (2020年12月14日開催) 「EUの『Farm to Fork (農場から食卓まで)』戦略について- 2030年に向けて, 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業・食品部門-」) (<https://www.alic.go.jp/content/001184979.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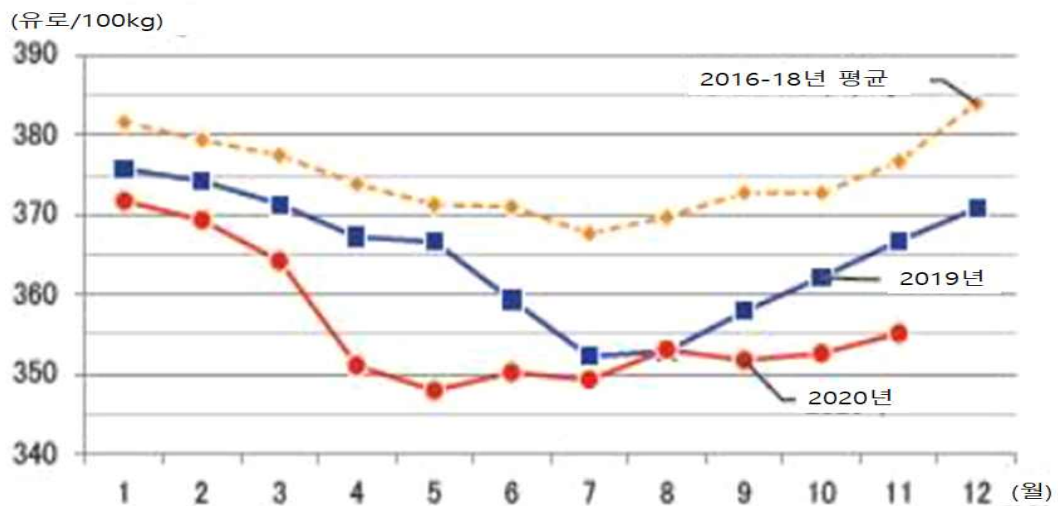
- 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20년 3월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EU 농축산업 전망-2019년 EU 농업 아웃룩회의로부터’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0年3月号「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畜産業の展望 - 2019年EU農業アウトルック会議から -」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030.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030.html)))

### 3. 각 축산물에 미친 영향

#### 3.1. 쇠고기

유럽위원회는 외식업체의 영업정지가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 고가격대에 거래되는 쇠고기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지육 총가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고급 부위의 수요 감소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급 부위는 주로 남미에서 계속 수입되었는데, 전년부터 저수준이었던 소 지육 도매가격은 2020년 3~5월 사이에 4.5% 하락하였다(그림 1). 이 가격은 5월 중순 저점을 찍은 뒤 외식업체가 서서히 재개되면서 7, 8월에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이후 다시 전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림 1> 소 지육 도매가격 추이



주: EU참고가격(A/C/Z-R3)

자료: 유럽위원회, 「Meat Market Observatory-Beef and Veal」

같은 해의 쇠고기 생산량은 COVID-19에 의한 영향이 컸던 4, 5월에 식육 처리장 조업 정지와 기후 불순으로 전년을 크게 밑돌았다. 하지만, 유럽위원회가 10월에 발표한 단기적 수급전망에 의하면,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연중으로는 전년대비 1.4%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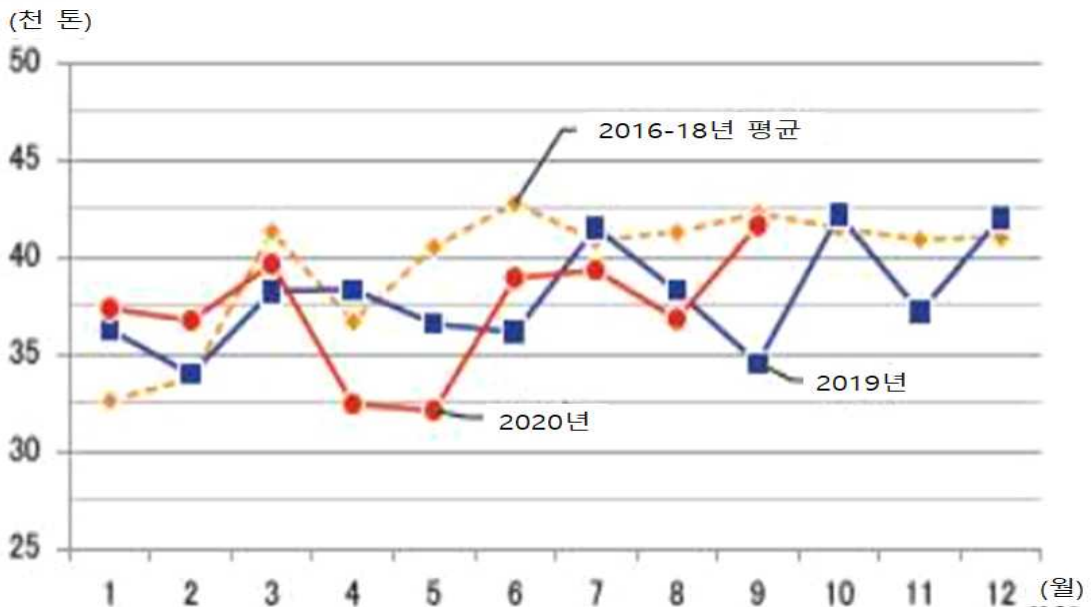
수출량은 4, 5월의 감소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순조롭게 추이하고 있는 반면, 수입량은 외식 수요의 감퇴로 3월 이후 전년보다 밀들었으나, 그 후 서서히 회복 추세에 있다(그림 3, 4).

<그림 2> 쇠고기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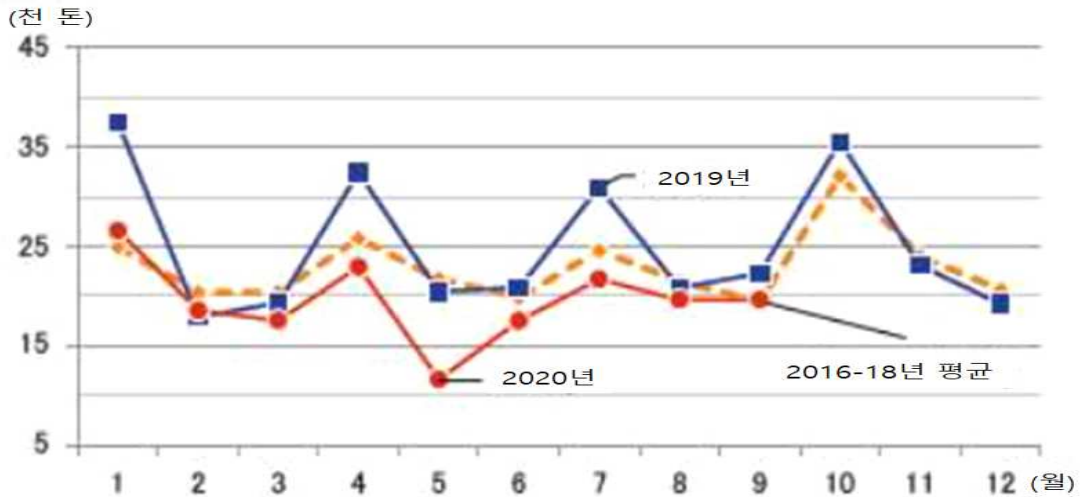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그림 3> 쇠고기 수출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HS코드 0201(냉장쇠고기) 및 0202(냉동쇠고기)의 합계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그림 4> 쇠고기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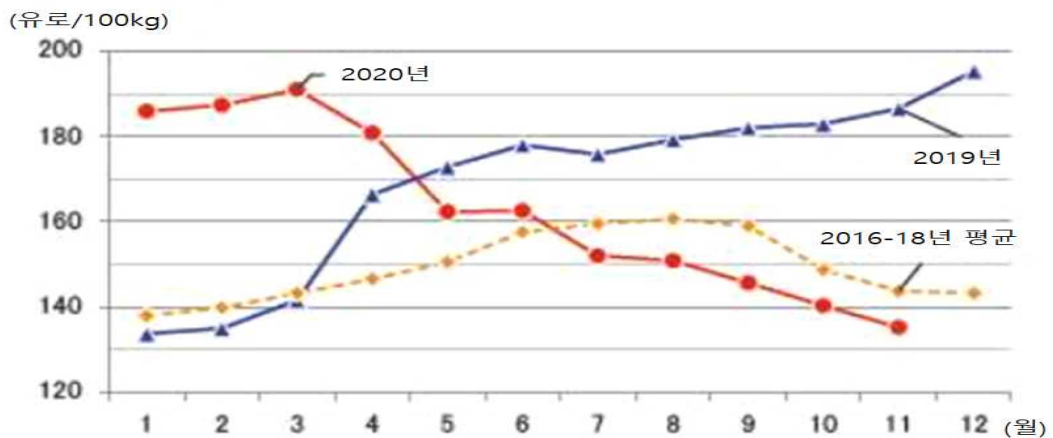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HS코드 0201(냉장쇠고기) 및 0202(냉동쇠고기)의 합계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 3.2. 돼지고기

투자 진전 등으로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단단한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돼지 지육 도매가격은 3~10월 사이에 26.6% 하락하였다(그림 5).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는 도축장 조업정지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유럽위원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국제 무역의 영향이 향후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두 번째 록다운 조치가 실시되는 등 COVID-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이 겹치는 상황이어서, 현지 관계자들은 EU 양돈업계의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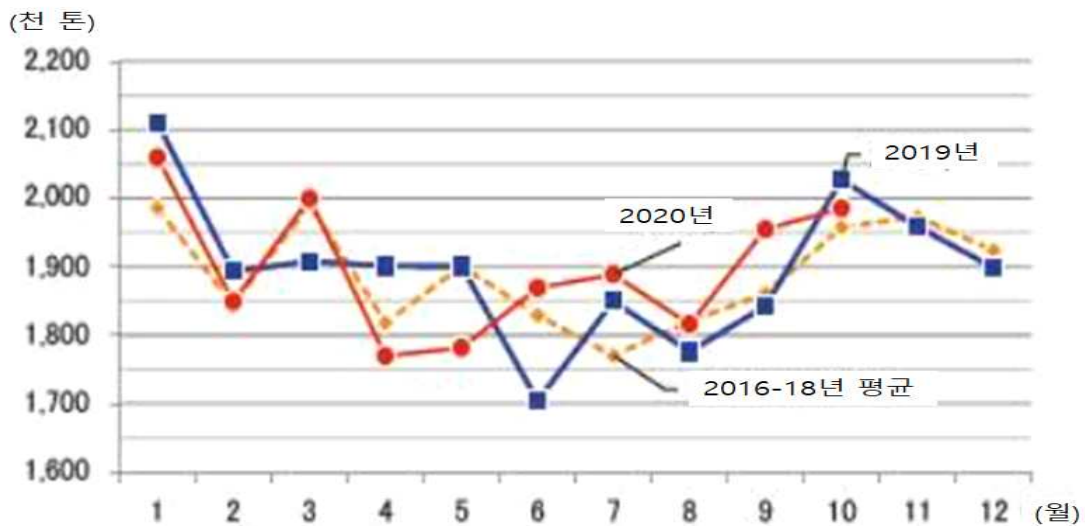
<그림 5> 돼지 지육 도매가격 추이



주: EU참고가격(Class E)  
 자료: 유럽위원회, 「Meat Market Observatory-Pig」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9월 독일의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규제가 이루어졌다. 2020년 EU의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EU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인 독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그림 6).

<그림 6>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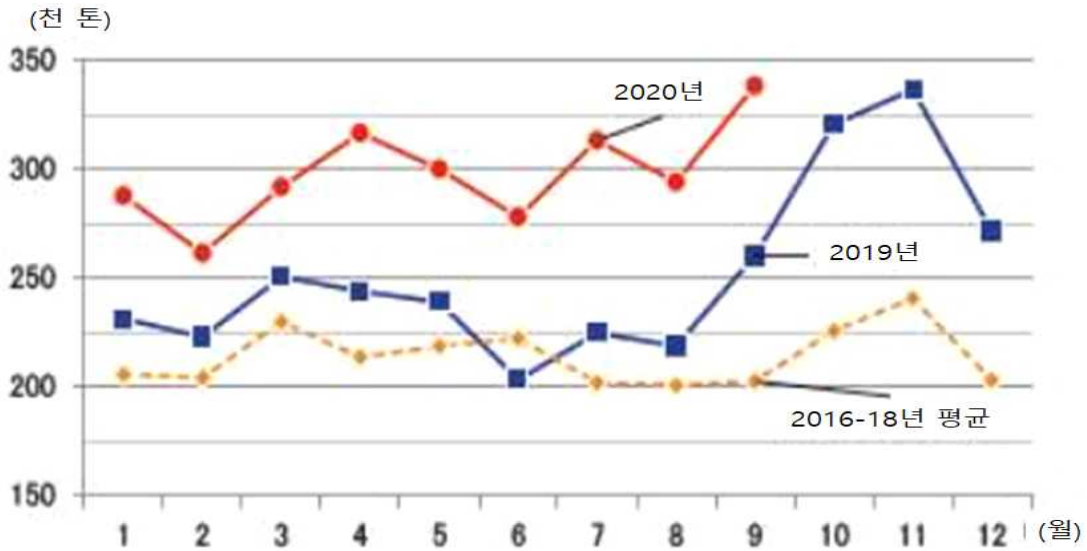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독일을 제외한 EU 역내 회원국으로부터의 대체 움직임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독일의 EU 역외 수출의 경우, 감염을 봉쇄하고 발생 지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일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지이며 자국내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의해 수입량을 늘리고 있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수출 상대국이 지역주의<sup>3)</sup>를 적용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질병발생 지역으로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해 극히 적다(그림 8).

(참고)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2개 주로 확대, 돈가는 하락 후 계속 하락세(독일)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野生

3) 지역주의란 질병발생국이라 하더라도 청정성(해당 질병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것이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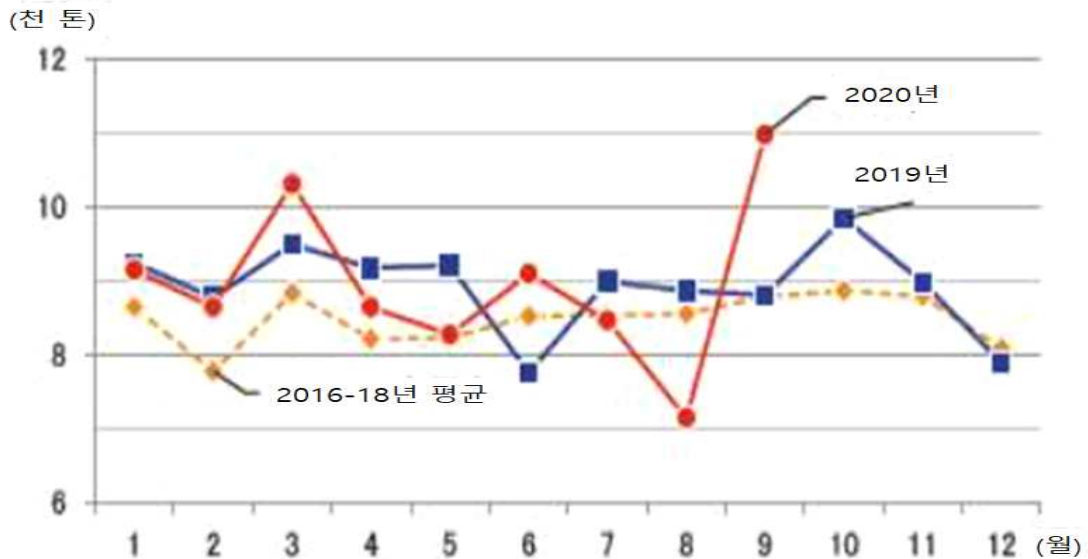
イノシシのアフリカ豚熱, 2州に拡大. 豚価は下落後, 低迷続く(ドイツ)」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14.html)

<그림 7>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HS코드 0203(돼지고기)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그림 8>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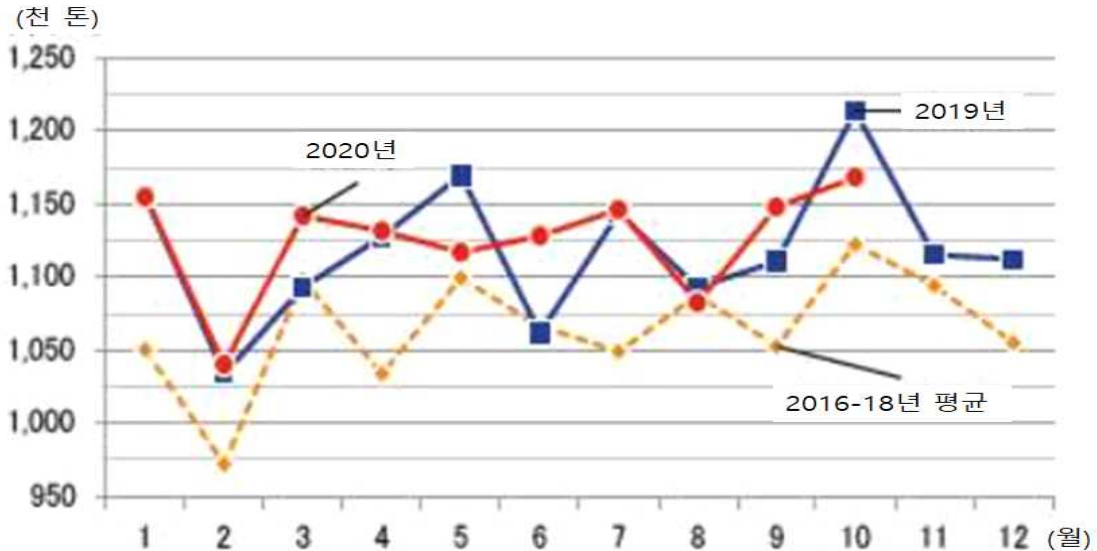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HS코드 0203(돼지고기)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 3.3. 가금육

외출 제한은 가정 내 소비가 많은 닭고기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닭고기 주요 생산국인 폴란드에서는 투자의 진전으로, 유럽위원회는 2020년의 가금육 생산량을 전년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가금육 생산량 추이



주: 가식처리중량 베이스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외식산업의 영업 재개는 한때 하락하였던 가금육 도매가격에 일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0). 아울러 가금육 중에서도 외식용이 주를 이루는 닭고기 이외 (오리, 빨닭(호로새4), 비둘기, 메추리)는 감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4)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로, 빨닭속에 속한 유일한 종. 다른 닭목 조류들과 마찬가지로 잡식 성향이 강하며, 주로 일부일처제지만 가끔은 일부이처제를 보이기도 한다. 주로 선호하는 서식 환경은 사바나 혹은 반사막지대이며 가끔 숲에 사는 개체군도 있다. 다른 이름으로 호로조, 색시닭이라고도 하며,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호로새'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잦지만, 호로새는 일본어 ホロホロチョウ(호로호로조)의 번역명이다. 당연히 정식 명칭이 아니다. 라틴어 멜레아그리스(Meleagris)는 원래 빨닭을 뜻하는 단어였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후 그곳에 서식하던 칠면조를 발견한 유럽인들이 칠면조와 빨닭을 혼동해 결국 칠면조의 속명이 되었으나 빨닭의 종명에 사용되고 있으며, 멜리아그리스는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는 탕카니카호 출신 시클리드(neolamprologus Meleagris)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가 됐다. 닭이나 칠면조만큼은 아니지만 가축으로도 길러진다. 남부 프랑스, 서인도 제도, 미국 등지에서 많이 길러진다. 육질엔 육즙이 풍부하며,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거의 없는 좋은 단백질덩어리. 닭의 일종이니 식용 가축이 맞지만, 국내에서는 가축보다는 주로 동물원 등지에서 전시용으로 많이 기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회, 타다키(표면만 구운 숙회), 꼬치구이, 탕 등 닭으로 하는 요리를 다 하여 먹는다. 꿩처럼 닭 비슷한 조류들은 사실 고기 맛이 닭과 별 차이 나지 않는다. 양계장 닭과 놓아 기른 닭의 맛, 영계와 노계 맛 차이, 품종에 따른 맛 차이가 닭과 비슷한 조류 맛 차이보다 더 클 정도라 괜히 돈 더 들여 키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흔히 키우지 않는 것. 일본에서 회로 먹는 건 우리와 다른데, 국내에서도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는 닭을 육회로 꽤 해서 먹는다. 북한에선 진주닭이라 불리는데, 고난의 행군 당

<그림 10> 가금육 도매가격 추이



주 1: 가식처리중량 베이스

2: EU 참고가격(브로일러, Class A)

자료: 유럽위원회, 「Weekly price report on Broiler carcass in the EU」, 「Monthly Price for Animal Products」

한편, 수출량은 2020년 연간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EU 각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그림 11). 또한, 수입량은 외식수요 침체로 2020년 연간 전년도에 전년 대비 1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2).

<그림 11> 가금육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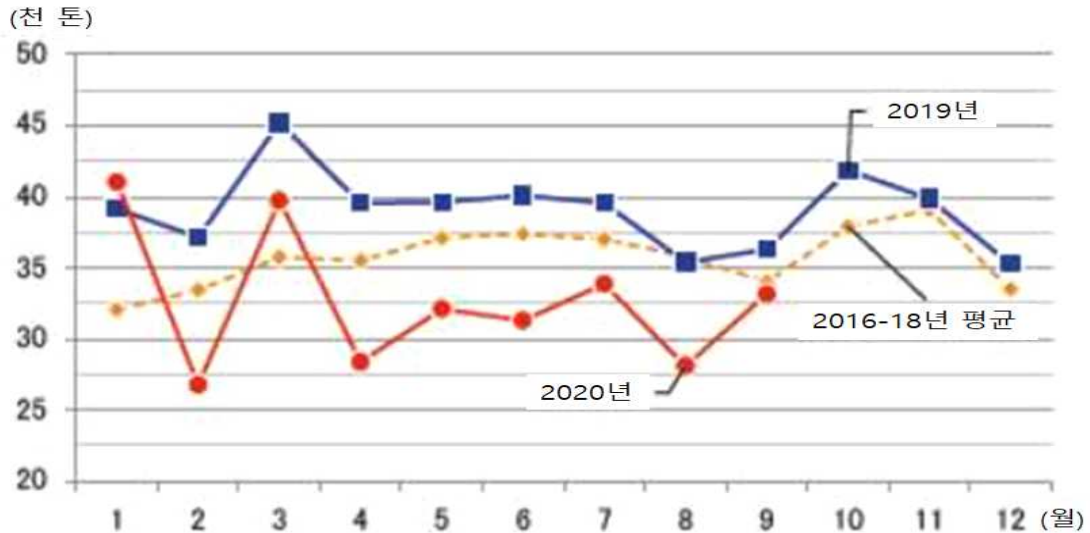
주 1: 가식처리중량 베이스

2: HS 코드 0207(가금육)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시의 북한 지도자였던 김정일과 그 일가는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호로조를 비롯해 고급 요리들을 먹어댔다. 참고로 호로조는 가축 취급이긴 하지만, 닭만큼 가축개량은 덜 되었는지 덩치에 비해 번식률도 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애초에 북한 기후와 맞지 않는 곳에서 살던 생물인지라 환경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등 손도 많이 가고 돈도 엄청 들어갔고, 그 시기에 자국민들 생활상이 극도로 궁핍해지는건 전혀 신경쓰지 않았으며, 결국 호로조 사육은 순전히 사치용이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이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그림 12〉 가금육 수입량 추이



주 1: 가식처리중량 베이스  
 2: HS 코드 0207(가금육)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 4. 달라지는 소비자 행동: 강해지는 지산지소(地產地消) 움직임과 재검토되는 농업

유럽위원회의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은 2020년 11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식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단락화(短絡化, 직거래와 유사한 개념)가 중요 전략의 하나이다” 라고 발신하였다. COVID-19의 위기로부터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EU에서는 그 교훈과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의 관점에서 농업 그 자체나 산지직판, 지역생산 지역소비(이하 ‘지산지소(地產地消)’) 등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단락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소개한다.

##### 4.1. 농업의 중요성, 지산지소를 중시(독일)

독일연방식품·농업부는 2020년 5월 29일 COVID-19의 영향을 포함한 국민의 식습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세 이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COVID-19 확산에 따라 2020년 4월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종합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자택에서 요리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응답자의 30%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보다 빈번하게 자택에서 요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 <변화하는 식습관>

‘식육·식육가공품을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5년 34%에서 26%로 감소하였다. 한편, 식물 유래 원재료로 만든 베지버거(veggie burger)와 같은 ‘동물성 식품의 대체품의 구입 경험이 있다’라고 한 사람은 약 반 정도였다(49%). 또한 이러한 경향은 14~29세에서 61%, 30~44세에서 64%를 나타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58%로 나타났다. 이유는 ‘관심이 있었다’가 75%였고, 이어 ‘애니멀 웰페어(animal welfare,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가 48%, ‘환경’이 41%, ‘맛’이 43%, ‘건강’이 37%였다. 또, 채식주의인 채식주의자나 비건(vegan)은 각각 5%, 1%로 저수준이지만, 채식주의<sup>5)</sup>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식육도 유연하게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이라고 불리는 층이 55%로 증가 경향에 있다.

## <농업의 중요성, 지산지소 중시>

COVID-19의 영향으로 농업 그 자체나 지역산 농산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응답자의 39%가 COVID-19에 의해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성인을 포함한 젊은 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47%였다. 또한 응답자의 83%가 ‘지역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2016년 73%, 2017년 78%에서 더욱 높아진 것이다. 현지산의 중요성은 품목에 따라 다른데, 우유·유제품 및 계란에서 가장 높은 84%, 빵류와 청과물이 83%, 식육·식육가공품이 76%이다(그림 13).

5)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피하고(일부 채식주의 단계에서는 닭고기나 가끔의 육식 허용)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먹는 음식에 따라 프루테리언, 비건, 락토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폴로 베지테리언, 플렉시테리언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프루테리언(fruitarian)은 극단적 채식주의자로, 채식 중에서도 과일과 견과류만 허용한다. 이들은 식물의 뿌리와 잎은 먹지 않고 그 열매인 과일과 곡식만 섭취한다. 비건(vegan)은 완전 채식주의자로, 육식을 모두 거부한다. 즉, 육류와 생선은 물론 우유와 동물의 알, 꿀 등 동물에게서 얻은 식품을 일절 거부하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다. 락토 베지테리언(lacto-vegetarian)은 육류와 어패류, 동물의 알(달걀 등)은 먹지 않고, 우유, 유제품, 꿀은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오보 베지테리언(ovo-vegetarian)은 육류·생선·해물·우유·유제품은 먹지 않지만 달걀은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락토오보 베지테리언(lacto-ovo-vegetarian)은 채식을 하면서 달걀이나 우유, 꿀처럼 동물에게서 나오는 음식은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페스코 베지테리언(pesco-vegetarian)은 채식을 하면서 유제품, 가금류의 알, 어류는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폴로 베지테리언(pollo-vegetarian)은 채식을 하면서 우유·달걀·생선·닭고기까지 먹는 준채식주의자를 이른다.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은 채식을 하지만 아주 가끔 육식을 겸하는 준채식주의자를 이른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그림 13〉 지역산을 중요시 하는 품목(상위 4개 품목)



자료: 독일연방 식품농업부, 「Deutschland wie es isst Der BMEL-Ernährungsreport 2020」

### 〈식품 문제에 대한 높은 의식〉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다. 원산지, 원자재, 유통기한 등의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축 사육 방법이 84%, 그 다음으로 적절한 생산 조건이 83%, 유전자 변형 여부가 78%, 친환경이 76%였다. 식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식품 폐기물 감소’ (86%), ‘지역산 소비 확대’ (82%), ‘식육 소비 감소’ (79%), ‘농업 생산성 향상’ (52%), ‘대체육’ (51%), ‘곤충식’ (41%), ‘배양된 식육’ (41%), 이 있다. 또 14~29세의 50%는 곤충식, 33%는 배양육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 〈농업에 기대하는 것〉

농업에 대한 기대로서는 ‘애니멀 웰페어 증시’가 66%로 가장 컸다. 애니멀 웰페어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공정한 임금’이 64%, ‘품질’이 63%, ‘환경’이 52%, ‘투명성’이 4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독일 연방의 드미트리 크뢰크너 식품장관은 “COVID-19에 따른 식습관 변화가 크다”면서, “자국 농업, 현지로부터 식량 공급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하며, 식품은 맛있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하게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4.2. 식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단락화(短絡化) 추진(프랑스)

프랑스의 농업정책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진흥을 위한 식품의 ‘단락유통(短絡流通, Circuit court)’ 추진을 들고 있다. 프랑스 농업·식품·어업·농촌부에 의하면, ‘단락유통’이란 식품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단락화를 말하며,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판매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중개를 하나 이내로 하는 농산물의 판매 방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단락유통’ 연구의 제1인자인 국립 농업·식품·환경연구소(INRAE)의 유나 시팔로 주임연구원에게 화상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 INRAE는 국립농학연구소(INRA)와 국립농업환경과학기술연구소(IRSTEA)가 합병하여 농업, 식품과 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 2020년 1월 1일에 설립된 조직이다.

유나 시팔로 주임연구원은 먼저 COVID-19가 ‘단락유통’ 진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식이나 학교급식용 등에서 유통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시장(마르쉐, marché)이나 직접 판매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은 COVID-19의 영향 아래 가장 수요가 높아졌다고 한다.

‘단락유통’에는 프랑스에서 대표되는 산지와 소비지 제휴인 AMAP(소농농업유지협회)나 온라인 판매 등도 포함된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시점에서 국내 전체 생산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호가 ‘단락유통’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품 유통량의 15~20%를 단락 유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OVID-19의 영향 하에서 채소, 과일, 고기, 유제품, 계란 같은 신선한 상품에서 ‘단락유통’이 진전된 이유는 안전·안심, 선도, 품질, 웰빙 등 외에도 지역 경제에 대한 공헌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유나 시팔로 주임연구원은 “COVID-19 수습 이후에도 ‘단락유통’의 시장 확대는 진행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 요인으로는 소비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젊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측도 그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정부로서는 그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 교육(특히 학생용 교육)이나 중규모 생산자의 해당 시장으로의 참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 <산지소비지 제휴운동>

여기에서는 AMA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AMAP(Association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란 소농농업유지협회로 번역되는 조직인데, 그 뿌리는 일본에 있다. 산지소비지 제휴운동으로서 고도성장기에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일본의 소비자조합이 1970년대에 시작한 소비자와 소규모 생산자의 제휴에 의해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활동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본다.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산지소비지제휴는 ‘TEIKEI’라고 하는 말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퍼졌다. 이들 국가의 생산자(특히 유기생산자)를 방문하면 높은 확률로 ‘TEIKEI’ 이야기꽃을 피운다. TEIKEI란 일본어로 ‘제휴’라는 말이다.

〈사진 4〉 COVID-19의 영향이 계속되는 브뤼셀의 마르쉐(야외시장) 모습. 입장자 수가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산직(産直), 지산지소(地產地消)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AMAP는 ‘단락유통’ 이라 불리는 식품 공급망(supply-chain) 단락화 추진의 대표적 사례이다.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소규모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지역 소비자들이 공정한 비용을 선불로 직접 구매함으로써, 서로 협력한다는 개념 아래 AMAP가 조직화되어 있다. 대상 품목은 과일, 채소, 계란, 치즈, 육류 등이며, 이 조직을 통한 식품 공급망 단락화 현상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상,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COVID-19는 소비자가 농업 그 자체의 기본방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산지소 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등 소비자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엿볼 수 있다. 아직은 다양한 제한이 있지만, 생산자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지역경제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고, 소비자는 산직(産直, 산지 직접판매)과 지산지소(地產地消, 지역 생산 지역 소비)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5. 맺음말

2020년 봄 이후, EU 각 국에 있어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확대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는 제2파, 제3파의 염려 등 장기에 걸쳐서 경제활동 등에 큰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계는 록다운, 외식업 영업정지 등에 따른 수요 변화에 휘둘리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COVID-19는 소비자의 지산지소 등에 대한 의식을 높여 농업 그 자체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는 등, 소비자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보이체호프스키 유럽위원회 농업 및 농촌개발 담당위원은 2020년 3월 25일 “우리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생산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주고 있는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감사드린다” 며, COVID-19의 영향 하에 있는 농업 및 식품 관계자들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했다.

당시, 유럽위원회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록다운이 한창이었다. 잠긴 상태에서 벨기에는 20시가 되면 주민들이 창문이나 베란다 등을 통해 바깥을 향해 감사의 박수를 치는 것이 관습이 되고는 하였다. 그 박수의 끝은 의료 종사자 등 외에도, 생활에 빠뜨릴 수 없는 식품을 보내 주는 생산자를 비롯한 식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후, 록다운 등의 규제는 서서히 완화되었지만, 상황이 진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 11월에 발표한 추계 경제 예측에서, EU의 2020년 역내 총생산(GDP)의 실질 성장률을 -7.4%로 보았다. 이는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4.3%를 웃도는 감소폭이다.

최근 일부 회원국에서 감염 제2파 등이 확인되어, 두 번째, 세 번째 록다운(lockdown)이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불투명성과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서로 배려하고 도움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COVID-19는 EU 역내 국민이 농업의 기본방향이나 식품, 농산물의 중요성 등을 재검토할 기회가 되었으며, 소비자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산직(産直)이나 지산지소(地產地消) 등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서로 돕기)이 있었던 것은 생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지 않은 변화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2차 확산 등의 정도를 포함하여 향후 COVID-19의 확대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원책 등도 포함한 불확정 요소도 많다. 향후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

큰 위기로부터 그린 리커버리라고 하는 형태로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EU 축산업계의 전개에는, 국제화가 진행되는 요즈음,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참고가 되는 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COVID-19의 종식을 진심으로 바란다.

## 〈부록 1〉 정육처리장 COVID-19 대응: 임직원의 안전과 사업의 지속

식육처리장의 COVID-19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EU최대 식육 기업인 네덜란드 Vion Food Group(이하 ‘VION사’)은 2020년 5월 25일 자사 내의 COVID-19 감염 확대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1) 리스크 분석: COVID-19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리스크 분석 실시
- (2) 직장 환경: 노동 시간을 더 연장하고 종업원 간 접촉 기회를 저감
- (3) 교통 수단: 승객 수 제한이 어려운 경우는 대형 버스 이용도 검토
- (4) 생활 형편: 전문 팀에 의한 종업원의 생활 상황(주로 공동생활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과 지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대체 숙박 시설 제공 등을 실시
- (5) 개인위생 관리: 공동 작업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VION사는 종업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국내 육류 공급을 계속하며 점포에 결핍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번 발표는 VION사의 독일 국경과 가까운 식육처리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감염자 수는 전체 종업원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147명이며, 그 외의 종업원도 격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VION 처리장 조업이 일시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업원은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

VION 처리장의 작업은 VION사의 다른 처리장으로 옮겨졌지만, 조업 재개에는 안전성 확인 등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VION사는 위생규제 등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VION사는 COVID-19 위기 속에서 감염된 종업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관계자 전원이 하나가 되어 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럽의 식육처리장에서는 종업원의 대부분이 구 동유럽 국가에서 일하는 노동자(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도 있다. 그러므로 VION사가 강구한 상술한 생활상황 파악과 지원과 같은 대책 등이 종업원의 안전을 지키고 사업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부록-사진 1〉 식육처리장 내부 모습. 종업원 간 비말방지를 위해 비닐시트가 설치되어 있다.	〈부록-사진 2〉 손가락 세정샴비도 비닐 시트	〈부록-사진 3〉 종업원 안전이 제일
		

## 〈부록 2〉 COVID-19와 마주하는 생산자: 헝가리 돼지 생산자

COVID-19의 영향 하에서, EU 생산자가 어떻게 COVID-19와 마주하고 있는지, 헝가리에서 망갈리차 돼지를 생산, 가공, 판매하는 양돈 생산자 조카 페케테(Zsóka Fekete) 씨에게 화상 인터뷰로 이야기를 들었다(부록 사진 4).

그는 2010년 26세 때 EU의 젊은 층 취농 지원을 받아 농업을 시작하였다. 모든 20마리로 시작하여 현재 모든 40마리, 비육돈 35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품종은 희소성이 있는 망갈리차 돼지로, 유기사료 생산부터 돼지의 번식, 비육, 가공, 판매뿐 아니라, 가공품에 사용하는 채소 생산까지를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다(부록 사진 5). 판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에서 220km 떨어진 수도 부다페스트 시장에 가서 농장에서 만든 소시지와 베이컨 등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부록 사진 6, 7). 이들의 품질은 행정적 표창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카 페케테 씨도 COVID-19의 확대가 진행되어 2020년 3월 20일부터 시장에서의 대면 판매를 중지하였다. 대신에 메일에 의한 주문으로 전환하여 단골들에게 상품을 발송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많은 단골들에게 농업은 생물이고 멈추지 않는다. 매일 새 생명은 태어난다” 고 전하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함께 하자” 는 메시지와 함께, 현재 양돈장 모습 등을 정기적으로 전하기도 하였다.

5월 들어 상황이 다소 개선되자 매주 금요일 부다페스트 고객의 집까지 직접 배달하는 판매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9월 12일부터는 시장 판매를 재개하여 많은 단골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이 위기 속에서, 그는 구입을 계속하여 준 구매자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품질을 중시하여, 얼굴이 보이는 시장에서의 판매에 힘을 쓸 것이라고 한다. 곤란한 상황에서도, 조카 페케테 씨의 돼지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정 고객이 많다. 시장판매 재개 후에도 매출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본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브랜드력과 직접판매에 의한 구매자의 연결을 소중히 하는, 확실히 유럽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COVID-19의 영향에조차 ‘강인성’ 을 가진 ‘농장에서 식탁까지’ 라는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의 본보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p>〈부록-사진 4〉 페케테 씨와 돈사 모습</p>	<p>〈부록-사진 5〉 망갈리차돈. 외견이 특징적</p>	<p>〈부록-사진 6〉 부다페스트시장에서 판매 모습</p>	<p>〈부록-사진 7〉 페케테 씨가 제조한 망갈리차 베이컨과 소시지</p>
			

## 참고문헌

-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ーと見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
-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対し, 食品流通を含む国境管理措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公表. 欧州食品安全機関, 食品を介した感染の証拠はないと報告」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46.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46.html))
-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対応する農業・食品部門を引き続き支援」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
-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追加支援措置を採択.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下にある生産者のキャッシュフローの改善など」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1.html))
-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追加対策を採択. 乳製品, 牛肉などの民間在庫補助(PSA)を5月7日から. チーズは最大10万トン市場隔離へ」([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
-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EU理事会, 生産者および中小事業者向け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追加支援措置を採択」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4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41.html))
- 農畜産業振興機構, alicセミナー(2020年12月14日開催)「EUの『Farm to Fork(農場から食卓まで)』戦略について- 2030年に向けて, 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業・食品部門-」  
(<https://www.alic.go.jp/content/001184979.pdf>)
-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2020年3月号「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畜産業の展望 - 2019年EU農業アウトLOOK会議から -」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030.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030.html))
-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野生イノシシのアフリカ豚熱, 2州に拡大. 豚価は下落後, 低迷続く(ドイツ)」([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14.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14.html))
- 독일연방 식품농업부, 「Deutschland wie es isst Der BMEL-Emahrrongstreport 2020」  
유럽위원회, 「Eurostat」  
유럽위원회, 「Meat Market Observatory-Beef and Veal」

유럽위원회, 「Meat Market Observatory-Pig」

유럽위원회, 「Monthly Price for Animal Products」

유럽위원회, 「Weekly price report on Broiler carcass in the EU」

나무위키, <https://namu.wiki/w/>)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연합(EU)의 식품안전정책 (유럽연합 개황, 2018. 9.),  
<https://terms.naver.com/>)